

제대로 된 글쓰기 방법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주목할 만한 신간도서

저자 “글쓰기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글쓰기 해야”



이 책은 글쓰기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싶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저자 간호윤은 “독서를 통하여 글 쓰려는 자 안목 넓어진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다산의 독서법뿐만 아니라 조선학자들의 독서에 대한 방법을 일화와 함께 제시했다.

연암은 평소 글을 쓸 때 천근의 활을 당기듯 신중하게 글쓰기를 했다고 한다. 저자도 글쓰기는 마음으로 쓰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마음 갖기(심론, 心論), 사물 보기(관론, 觀論), 책 읽기(독론, 讀論), 생각하기(사론, 思論), 내 글쓰기(서론, 書論)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글쓰기는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음 자세가 갖춰진 뒤 사물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고, 사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어떤 책을 제대로 읽으며, 책을 읽을 줄 알아야만 제대로 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만 비로소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각 장(론, 論)은 다시 계(計)로 세분됐다.

저자는 이 책에 다산과 연암의 글들뿐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독서와 글쓰기 방법

에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여 제대로 된 글쓰기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부록에 글쓰기 관련 책들을 수록했다.

“문학이란 반드시 사실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비록 그 무엇을 가설적으로 상상한 것이라도 그것이 과연 복받치는 정열의 표현이고 보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고전의 삼페’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제를 세웠으면 가감 말처럼 정열로 쓰면 된다. 심장 뛰고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글 쓰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온 정성 다해 쓰면 된다는 말이다.” (p148) 간호윤 지음, 486쪽, 소명출판, 2만2000원. /뉴시스

30년 문화계 활동 실무형 전문기획사

전주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백옥선 박사 내정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신임 대표이사로 백옥선 박사(55세)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14일 (재)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을 위한 심의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선정했다.

백옥선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전주지역 연극배우를 시작으로, 전주예총 사무국장, 전주공예품전시관 초대관장, 전북도청 최초 문화전문직 사무관을 지냈다.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백제예술대학교

전주대학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 현재는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이론과 문화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백 신임 대표이사는 전주한지축제를 최초로 기획해 한지산업의 발전에 산과 역할을 했고, 전북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한옥야간상설공연 등을 기획 추진했다. 군산 근대문화유산 창작벨트 사업을 군산시에 제안해 현재의 군산근대문화유산 거리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했다.

특히,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을 적



극 추진,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 30여 년 동안 문화계에서 활동했던 실무형 전문기획사다.

한편, (재)전주문화재단(김승수 이사장)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조선시대 후기 명필

‘창암 이삼만’ 특별전

전주역사박물관서 9월 13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 특별전을 오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구름 가듯 물 흐르듯’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창암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서예작품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암 이삼만(1770~1847)은 전주 출신으로 추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힌다.

창암은 자신만의 필법인 막힘이 없고 자연스러운 이른바 ‘행운유수체’로 이름을 떨쳤으며, 중국의 서법을 배제하고 동국진체를 완성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전주에 들러 창암의 글씨를 보고 감탄했으며, 창암의 묘지명을 써줬다고도 한다.

특별전에서는 옥과미술관, 강양서예관, 전북대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 개인이 소장해온 창암의 서예작품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암이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쓴 ‘신독’과 제자 원규에게 자신의 글씨 철학을 전해주 준 서첩인 ‘창암서적’ 등이 있다. 또 창암의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창암 병풍’과 ‘창암 천자문 병풍’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역사박물관은 개관 18주년을 맞아 창암을 주제로 특별전 개막식과 ‘제22회 전주학 학술대회’를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창암의 서예 세계를 살펴보고 그의 서예 사적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서예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창암 연구의 미진한 부분들을 밝히고 차후 과제들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임실군 필봉 작은도서관이 인문학 강좌인 ‘삶·문화·예술 공동체’와 ‘2020 인문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민 독서문화 활동에 ‘활기’ 불어넣다

임실 필봉도서관, 10월까지 독서·판소리 인문학 강좌

임실군 필봉 작은도서관이 인문학 강좌인 ‘삶·문화·예술 공동체’와 ‘2020 인문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군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2020년 필봉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인 ‘삶·문화·예술 공동체’는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예, 판화, 시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대면 강의로 진행하나 유튜브에 필봉 작은도서관 또는 philbong GOOD으로 검색하면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는 ‘판소리 인문학’을 주제로 이달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15회에 걸쳐 군민들에게 판소리 인문학을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강의를 △판소리, 시대의 지화상, △판소리 명창 열전, △판소리 속 음식으로 본 사람 보편의 욕망과 희노애락, △판소리 다시 읽기, △판소리는 왜 현재적인 예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박사 양옥경 강사가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 예약 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봉 작은도서관(063-643-1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기자

‘최대 15% 할인’ 도서정가제… 문체부, 개선안 논의

오늘 공개토론회

과다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책 판매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년문화공간 주(주)동교동 니콜라호텔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자출판물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자유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